

사 례 보 고

미국의 학교도서관 미디어의 달

현재 미국 데이비스 초등학교에서 도서미디어 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송은경씨가 4월 학교도서관 미디어의 달과 관련해 미국의 도서미디어 교사의 자격과 역할, 학교도서관 미디어의 달 활용방법, 학교도서관 미디어의 달의 각종 행사를 소개해 주었다. 우리나라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좋은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 편집자 주

목 차

- I. 4월 '학교도서관 미디어의 달'에 알아보는
도서미디어 교사의 자격과 역할
- II. 4월 '학교도서관 미디어의 달'
어떻게 하면 학교도서관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
- III. '학교도서관 미디어의 달' 각종 행사안내



송은경*

I. 4월 '학교도서관 미디어의 달'에 알아보는 도서미디어 교사)의 자격과 역할

■ 학교도서관 책임자의 자격

학교도서관의 책임자는 School Library Media Specialist(SLMS) 또는 Library Media Specialist(LMS)라고 불리우며 학생수가 1,000명 미만일 때에는 보통 한 학교에 1명이 근무하는데 학생수가 1,000명이 초과할 경우에는 학생 1,000명 당 1명의 비율로 근무한다.(예: 학생수 3,000명이면 도서미디어 교사 3명)

뉴욕주에서는 고등학교에만 도서미디어 교사(이하 LMS)를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는 초등학교들과 어떤 중학교들에는 학교도서관이 없거나, 있어도

* 미국 롱아일랜드 소재 데이비스 초등학교 도서미디어 교사(School Library Media Specialist), OKjoo01@hotmail.com
1) Library Media Specialist는 한국의 사서교사와 개념이 조금 다르므로 필자가 임의로 LMS를 도서미디어 교사라 번역하였다.

LMS가 상주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한국의 사서교사와 개념이 조금 다르므로 간단히 LMS의 자격과 역할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뉴욕주에서 LMS로 취업을 하려면 주 교육부에서 인가한 대학원의 문헌정보학과(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에서 학교도서 매체(school library media) 코스를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 그리고 뉴욕주 교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교육학에서 필요한 학점을 이수했거나 교사교육프로그램(teacher education program)의 학사 또는 석사과정을 마쳐야 하고 학교도서관에서 관찰 학습(observation) 및 교생 실습(student teaching) 등 모든 요건을 갖추어 LMS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대부분의 LMS는 교직에 있었거나 공공도서관 사서(public librarian)로 일한 경험을 되살려 LMS로 전향한 경우가 많다. 필자는 고려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퀸즈 칼리지 대학원에서 도서관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퀸즈보로 공공도서관 플러싱 지점과 롱아일랜드의 한 공공도서관에서 다년간 사서로 일하면서 많은 경험을 쌓은 후에 다시 롱아일랜드 대학 문헌정보학과 대학원에서 학교도서정보학 과목들을 이수하고 LMS로 전향한 케이스로서 롱아일랜드 소재 데이비슨 초등학교에서 LMS로 의욕적으로 일하고 있으며 미국 내 LMS의 현주소와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 도서미디어 교사(LMS)의 역할

첫째, 학교도서관의 책임자로서 LMS는 매년 도서관의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며 소장 도서 및 모든 자료와 비품 및 장비들의 주문, 관리 등에 대한 책임자로서 도서관에서 일하는 비서나 비전문직 직원, 자원봉사자들을 감독, 지휘한다.



〈유치원생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필자〉

둘째, 교사로서 LMS는 전교 학생들에게 문학 전반에 걸쳐 문학의 감상과 이해를 도모하는 내용과 도서관 이용 전반에 대한 수업을 실시하고, 비소설, 백과사전, 온라인데이터베이스,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필요한 자료를 찾아 연구과제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학과목 담당 교사나 담임교사(초등학교의 경우)와 협조하여 학생들에게 Information Literacy(정보를 찾아 이용하는 능력)를 가르친다.

또한, 학생들이 인터넷에서 학업에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는 방법과 리포트를 쓸 때 자신이 인용한 글들에 대해 주를 다는 이유와 요령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도 LMS의 몫이다.

셋째, 담임 교사들과 기타 특별 과목 교사들의 교수 파트너로서 LMS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교사들과 수업내용의 계획에서부터 필요한 자료들의 제공 및 수업의 성과 평가를 포함한 team teaching을 한다. 이를 위하여 LMS는 수시로 담임교사들과 다른 학과목 교사들과 서신으로, 또 대화를 통하여 각 학급, 각 학년에서 어떠한 학업내용이 이루어지는 지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그 학교의 정보전문가(information specialist)로서 LMS는 21세기를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최신 정보기술을 학생 및 교사, 학부모, 그밖에 모든 학교관계자들에게 소개하고 또 이를 각종 수업내용에 통합하여 학생들에게 가르침으로써 학교 및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기술을 습득 하게 한다. 이를 위하여 LMS는 늘 배우는 자세로 새로운 정보기술을 익히며, 학군 내에서 또는 기타 교육기관들에서 제공하는 교사 재교육프로그램 코스(in-service courses)들을 선택하여 수강 함으로써 이 분야의 선구자가 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끝으로, 프로그램 전문가로서 LMS는 학생들의 독서장려와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시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2004년 이 학교에 부임한 이후 필자가 계획하고 실시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2005년 6월** - 매년 이 학교에서 International Day에 각 학급마다 한 나라를 소개하는 춤과 음악을 선보이는데 필자는 1학년과 2학년의 두학급의 담임을 도와 한국의 아리랑과 경복궁 타령, 은울탈춤 등 음악에 맞추어 학생들이 탈춤과 부채춤을 추는데 자료를 제공하였고, 전교생들에게 한국에 대한 비디오를 보여주고, 한글 전래동화를 읽어주었으며, 한글로 이름을 써주고, 한국음식 등도 선보였다.



〈인터내셔널 데이 행사에서 부채춤을 선보인 1·2학년 학생들〉

*** 2005년, 2006년 11월** - ‘아동서적의 주간’ (Children’s Book Week) 동안 학교 게시판에 학군의 교육감, 부 교육감, 시장, 교육위원들, 교장, 교사 등이 좋아하는 아동서적들의 포지들과 왜 그 책을 좋아하는 지를 쓴 작은 포스터 등을 한달 동안 전시하여 전교생과 교직원들이 볼 수 있게 하고 또한 학교 open house night에 학부모들과 그 외 방문객들이 보도록 하였다. 또한, 그 주간동안 학교도서관에 guest reader들이 방문하여 아동서적들을 학생들에게 읽어주는 행사도 하였다.

*** 2005년 12월** - 아동작가 Brian Heinz의 방문 주최

* 2006년 2월 - 설날 맞이 한글 붓글씨 강좌 및 한국음식부페주최



〈시예가 이유헌 박사가 학생들에게 붓글씨의 기본 획을 가르치는 모습〉



〈이유헌 박사가 직접 쓴 붓글씨를 보여주는 모습〉



〈붓글씨 강좌를 마치고 에드워드 텔러씨 교장과 이 박사와 함께 선 필자〉



〈한국음식 부페에서 한국음식을 맛보는 교육감 프렐리 박사와 이 학교 간호사 쏘렌슨씨〉

* 2005년, 2006년 3월 - Women's History Month(여성의 달)을 기념하여 여성밴드 초청, '역사상 빛나는 여성들' (Women in History) 행사를 본교의 문화교육위원회(cultural arts committee)와 공동 개최

* 2005년, 2006년 4월 - 전국 도서관주간을 맞이하여 30여명의 guest reader들이 각 학급을 찾아가 책을 읽어주는 'Great New York Read Aloud' 행사 주최

* 2006년 6월 - 100여 권의 아동서적을 집필한 아동작가 David Adler의 방문 섭외

이 외에도 LMS는 학군내 다른 LMS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교육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고, 새로운 정보를 서로 배우고 익히며, 또한 같은 지역내 다른 학교 LMS들과도 정기적으로 회의를 가져 새로 나온 서적, 꼭 알아야 할 사항, 새로 나온 정보기술, 성공적인 교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또한, 각종 교육, 도서 미디어 컨퍼런스 등에도 참가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배우

고 이를 자신의 교육현장에 반영시키는 노력을 하는 LMS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늘 배우는 자세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며,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가 독서와 배움을 즐기는 평생교육자(life-long learner)가 될 수 있도록 학교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LMS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매력이 아닐까 싶다.

II. 4월 ‘학교도서관 미디어의 달’(School Library Media Month) 어떻게 하면 학교도서관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

1958년에 미국도서관협회(American Library Association)에서 최초로 ‘전국 도서관 주간’(National Library Week)을 4월 중에 정한 이후부터 매년 4월 한 주간 동안 모든 도서관 이용자들은 전국의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각종 자료들과 도서관 직원들의 중요함을 되새기게 된다.

2006년 도서관 주간은 4월 2일에서 8일까지이며 각종 도서관들에서 ‘Change Your World @ Your Library(도서관에서 당신의 세계를 바꾸세요)’라는 주제로 도서관 이용을 홍보하고 있다. 학교도서관들은 이 주간 동안 여러가지 도서관 미디어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독서와 정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려고 노력한다.

급증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각종 지적, 문화적 자원을 무료로 대여하고 각종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은 필수 불가결한 존재라 할 수 있다. 특히 학생들에게 있어서 학교도서관을 잘 이용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한 권의 책이 한 학생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으며, 학교 졸업 후 직장과 사회에서 요구하는 information literacy skill(정보를 찾아 이용하는 능력)를 배우는 곳은 학교도서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때에 학교도서관 이용과 부모가 자녀들의 독서력을 증진시키는 요령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 학교도서관 이용 요령

- 도서관에서 빌린 책은 꼭 기한내에 반납하도록 한다. 빌린 책은 애완동물이나, 아기 등의 손이 닿지 않는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젖지 않도록 하며, 절대 음식물 옆에 두지 않

는다. 읽다가 중단할 경우에는 페이지를 접지말고 꼭 책갈피로 표시한다. 책을 읽기 전에는 손을 씻고 물기를 닦아야 하며, 책에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려서는 안 된다.

- 만일 책을 잃어버렸거나 책이 망가져서 다시 새로 사야하게 되면 빌려간 학생의 부모가 책값을 물어내야 한다. 책값을 내지 않으면 학교에서 성적표를 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 오리엔테이션 때 도서관의 구조와 소장물들을 돌아보게 되는데, 예를 들면, 그림 이야기책, 쉬운 이야기 책, 소설, 비소설, 참고문헌, 정기간행물 등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아두어야 한다. 잘 모를 때는 안내관을 주의깊게 본다.
- 초등학교 학생의 경우에는 1주일에 한번 정도 학급단위로 도서관을 찾아가 지난 주에 빌린 책을 반납하고 새로운 책들을 빌리며 사서교사의 수업을 듣는데, 학교에 따라 아침 일찍이나 점심시간 또는 방과 후에도 도서관에 들릴 수 있게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도서관에는 많은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날 때마다 도서관 이용을 하는 것이 좋으며 사서교사에게 좋은 책을 추천받는 것이 좋다.
- 도서관에서는 때때로 같은 부류의 책들을 전시하기도 하는 데, 예를 들면 신간서적이거나 여성에 관한 자서전들을 따로 전시한 곳에 가서 책들을 하나 하나 주의깊게 훑어보는 것도 공부가 될 수 있다.

- 학교도서관의 소장물은 크게 소설류, 비소설류, 참고문헌류, 잡지 등 정기간행물류, 컴퓨터 등으로 나뉘는데 학생들은 책을 빌리기 전에 사서교사에게 조언을 구하여 자신의 흥미와 독서 능력에 맞는 책을 고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떤 학생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작가의 책이나 좋아하는 시리즈의 책들만 고집하여



〈학교도서관의 소설류 서가에서 소설을 빌리기 위하여 책의 제목들을 보고 있는 2학년 학생〉

다른 책들은 읽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소설도 현실적소설(realistic fiction), 추리소설(mystery fiction), 상상소설(fantasy fiction), 역사소설(historical fiction), 과학소설(science fiction) 등 다양한 장르의 소설을 골고루 빌려 읽는 것이 중요하다.

- 비소설의 경우에도, 한 가지 분야만 고집하지 말고 과학, 종교, 사회, 문학, 기술, 역사, 지리 등 여러 분야의 책을 빌려 읽는 것이 좋다.
- 소설들은 작가의 성(last name)을 따라 알파벳 순으로 책이 꽂혀 있기 때문에 일단 원하는 책의 제목(title)만 알면, 도서관 자동화가 된 경우, 컴퓨터 목록인 OPAC(Online Public Access Catalog)을 이용하여 작가의 이름을 찾아 직접 서가에 가서 원하는 책을 찾는다.

- 비소설 서적들은 각 주제에 따라 듀이 십진분류 번호(Dewey Decimal Number)가 주어져서 그 번호에 따라 000에서 999까지 순서대로 서가에 꽂힌다. 학생들은 OPAC을 이용하여 원하는 주제의 번호를 찾아 서가에서 원하는 책을 찾는다.
- 중·고등학생들의 경우, 학교도서관에서 사서교사의 도우미로 일하면서 서가정리, 서적 출납, 반납 등 여러가지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다.
- 학교도서관은 매년 책을 구입하는 예산이 있으므로 좋은 책이 있으면 그 책을 구입할 수 있는 지 사서교사에게 요청한다.
- 시간이 날 때마다 학교도서관의 각종 컴퓨터 프로그램을 익히고 사용하므로써 컴퓨터 이용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학교도서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행사(포스터, 책꽂이, 글짓기, 시 낭송 등)에 참가한다.
- 도서관 수업중에는 다른 수업 중과 마찬가지로 품행을 단정히 하고 사서교사의 지시를 잘 따른다.



〈학교도서관의 비소설류 서가(nonfiction section)에서 담임교사의 도움으로 책을 고르는 2학년 학생들〉

■ 부모가 자녀의 독서력을 증진시키려면?

부모는 자녀의 가장 중요한 선생님이다. 자녀의 독서실력을 증진시키려면,

1. 부모님 자신이 책을 읽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면 그들도 따라 할 것이다.
2. 독서는 농구대에 공을 집어넣는 것이나 피아노를 치는 것처럼 연습할 수록 느는 기술이다. 하루에 적어도 30분간 좋아하는 책이나 신문 또는 잡지를 읽는 학생들은 독해력이 증진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3. 가족들 모두 도서관 카드를 만들어 공공도서관에 정기적으로 가서 직접 책을 빌린다.
4. 부모가 자녀들에게 책을 직접 읽어주므로써 자녀들의 독해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가능하면 어릴 때부터 읽어주는 것이 좋으며, 자녀들이 크더라도 계속 읽어주는 것이 좋다. 하루에 일정한 시간대를 정해놓고 매일 10분씩 읽어주는 것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5. 일간 신문에서 찾아야 될 것들의 목록을 자녀에게 주고 찾게 하는데, 예를 들면, 자녀가 좋아하는 운동선수, 가족이 거주하는 도시의 기온, w로 시작하는 단어 3개, 그리고 가까운 극장에서 상영하는 영화이름 등이다.

6. 자녀들에게 책을 선물로 주고 가정에 자신들의 도서실을 꾸밀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준다.
7. 독서를 특권으로 인식시킨다. 예를 들면, “잠자리에서 15분간 책을 읽으면 15분 늦게 자도 된다.” 또는 “오늘 저녁에 설거지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이야기 하나를 더 읽어주겠다.” 등등.
8. 부모가 책을 잘 읽지 못하더라도 자녀에게 독서를 권장할 수 있다. 자녀들이 책을 읽을 수 있게 되면 여러분에게 읽어주도록 하면 된다. 그들이 읽은 책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다.

Ⅲ. ‘학교도서관 미디어의 달’ 각종 행사안내

4월은 ‘학교도서관 미디어의 달’ (School Library Media Month), ‘이야기 구연의 달’ (Storytelling Month) 이자 ‘전국 시의 달’ (National Poetry Month)이다. 또한 ‘전국 도서관 주간’ (National Library Week : April 2-8), ‘어린이들 시의 주간’ (Young People’s Poetry Week : April 10-16), 그리고 ‘텔레비전 끄기 주간’ (TV Turnoff Week : April 24-30) 등이 있어서, 미국 전역의 학교도서관들에서 도서관 이용을 권장하고 독서의 중요성과 독서의 즐거움을 나누기 위하여 여러가지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진다.

■ 4월에 있는 행사들

• Great New York Read Aloud

이 행사는 전국 도서관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뉴욕주 도서관(New York State Library)에서 1985년 부터 시작한 행사로서 뉴욕 주에 있는 각종 도서관들이 그 지역의 정치인, 시장, 경찰서장,



〈필자의 학교 학군의 교육감인 프릴리 박사가 3학년 학생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모습〉



〈필자의 학교가 소재한 린부룩 시의 시장인 스카파도씨가 3학년 학생들에게 야구선수 루 게릭의 이야기를 읽어주는 모습〉

작가, 학부모 대표등을 초대하여 학생들에게 큰 소리로 책을 읽어주는(Read Aloud) 것으로써 필자가 근무하는 데이비스 초등학교에서는 올해 4월 6일 소속학군의 교육감, 부교육감, 교장, 시장, 국회의원, 경찰관, 공공도서관 사서, 학군의 도서 미디어 교사들, 작가, 학부모 대표(PTA president), 정년퇴직한 교사들, 심지어 자원봉사자들까지 30여명이 유치원부터 4학년까지 총 17학급에 찾아가 학생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독서의 즐거움을 나누었다. 특히, 필자는 방문하는 guest reader들에게 6월 13일 본교를 방문할 예정인 아동 서적 작가 David Adler가 쓴 위인전과 추리소설들을 읽어주도록 권유하여 많은 학생들이 작가의 방문 전에 그의 작품에 접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좋은 기회가 되었다.

• **Young People’s Poetry Week(April 10–16, 2006)**

전국 시의 달(National Poetry Month)의 공식 행사로서 8년째를 맞이하는데 전국의 학교, 도서관, 책방, 그리고 가정들에서 ‘어린이를 위한 시의 주간’을 기념하는시 낭송, 시 짓기 대회 등의 행사를 한다. The Children’s Book Council(CBC)는 이 주간의 공식 스폰서로서 이러한 행사들에 관한 아이디어를 자체 웹사이트(www.cbcbooks.org)에서 제공하고 있다.

• **National D.E.A.R. Day(April 12, 2006)**

D.E.A.R은 Drop Everything and Read의 약자로서, 학교에서는 D.E.A.R time에 학생들이 하던 일을 중단하고 좋아하는 책을 집어들고 지정된 시간동안 읽는다. 올해 4월 12일은 각 가정마다 모든 가족들이 30분이상 “하던 일을 중단한 채 독서”하는 것을 장려하고자 최초의 D.E.A.R. Day로 정해졌다. D.E.A.R. Day로 정해진 4월 12일은 라모나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Ramona Quimby, Age 8의 작가인 비벌리 클리어리(Beverly Cleary)의 90세 생일이기도 하다.

• **Storytelling Contest(이야기 구연대회)**

4월은 또한 스토리텔링의 달로써 작년 4월 필자는 1주일에 1번씩 도서관에 학급 단위로 찾아오는 학생들에게 전래동화나 우화 등을 구연하는 시범을 보이고 학생들이 이를 모델로 하여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구연할 수 있도록 기술과 요령을 가르쳐서 몇 주의 연습을 거친 후에 8개 학급에서



〈이야기 구연대회에 출전한 4학년 학생들이 필자로부터 상장을 받는 모습〉

뽀뽀 학생들 4월 전교생과 전직원, 학부모들이 모인 앞에서 이야기 구연을 하였다. 이는 학생들에게 자신감과 표현력을 길러주고 또한 학교전체에 구전 문학에 대한 관심을 증진하고 또 컴퓨터와 TV 등 각종 문화이기를 잠시 잊고 인류역사상 가장 오래된 오락이었던 이야기 구연의 즐거움을 복원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평소에 수줍음이 많거나 성격이 활발하지 않은 학생들은 평소에 좋아하는 이야기를 많이 연습하여 전교생이 모인 무대앞에서 봄으로써 자신감과 표현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 Poetry Recital(시낭송 대회)

올해 필자는 4월 한달 동안 도서관에 학급단위로 오는 학생들에게 여러 종류의 시를 낭송하는 시범을 보이고, 좋아하는 시를 학생들에게 나누어준 후 다음 주까지 집에서 외워오도록 하였다. 시를 읊을 때에는 감정 표현이 풍부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며, 몸을 이용한 제스처도 곁들이도록 조언을 하였다. 각 학급에서 1명에서 5명 정도 5월에 있을 시 낭송 대회에 출전할 예정이다.

• Author Visit(아동작가 초대)

대부분의 학교의 경우 학부모 협회회의 기금으로 LMS가 아동문학 작가들을 학교에 초대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작가가 되게 된 동기, 현재 작품활동,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 등을 직접 들어보고 그들이 직접 싸인한 책을 구입하도록 하는 행사들을 주선한다.

이는 학생들이 평소에 읽었던 책들을 쓴 작가들을 직접 만나보고 이야기를 들으며, 질문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그들에게 책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계기를 줄 수 있다. 이 행사를 주관하는 LMS는 작가의 방문 전에 미리 그 작가의 작품들을 각 학급의 학생들에게 읽어주고 또한 학생들이 돌아가며 그 작가의 작품들을 빌려서 읽게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 작가에 대한 공부를 미리 하게 한다. 작가가 방문한 다음에는 감사의 편지를 학생들에게 쓰도록 가르침으로써 실생활에 연관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대부분의 경우 작가들이 답장을 해주기 때문에 학생들은 꼭 편지를 쓰는 것이 좋다.



<아동작가 브라이언하인즈씨가 자신이 쓴 책의 소재를 얻기 위해 북극에 가서 동물털로 만든 모자와 장갑을 끼고 허스키들이 끄는 개썰매를 모는 장면을 재연하고 있는 모습>

• Career Day(일일 직업 견습의 날)

이 날에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일하는 어른들(교장, 교사, 청소부, 비서, 간호원등)을 하루 종일 그림자 처럼 따라다니며 그들의 일을 직접 해볼 수 있는데 작년 4월 필자는 2명의 학생들에게 도서관 운영과 도서관 수업전반에 걸쳐 하루동안 LMS의 업무를 수행 및 보조하도록 하였고 그 학생들은 필자가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일을 하는지 몰랐다면 일일 견습을 만족해 했다. 학생들은 이런 행사에도 빠지지 않고 참가하는 것이 좋다. 올해 4월 12일에 또다시 일일 직업 견습의 날 행사를 하는데, 이번에 필자는 그 날 하루 동안 LMS 견습생을 하고자 자원한 3명의 학생들의 응시서류를 검토하였고, 면접에서 왜 LMS가 되고 싶은지, LMS의 업무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등에 대한 질문을 하고, 합격한 경우 합격통지서를 주었다. 한 학생은 책을 읽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직업을 원한다고 하였고, LMS의 업무는 학생들에게 좋은 책을 권해주는 것 그리고 많은 자료들을 도서관에 잘 분류하고 보관하는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일일 미디어 교사 견습을 한 두 학생의 모습〉

• TV Turnoff Week(April 24-30, 2006, 텔레비전 안 보기 주간)

이 주간에는 학생들이 TV 등 과학기기의 이용을 자제함으로써 보다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나서서 독서를 권장하고 각종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TV를 끄으로써 우리는 더 생각하고, 독서하고, 창조하며,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다. 우리 가족들과 더 대화할 수 있고, 우리 커뮤니티와 더 가까워 질 수 있다. TV를 끄는 요령은 다음과 같다.

- * TV를 다가가기 힘든 구석에 놓는다.
- * 우선 TV에 비디오만 나오도록 장치해 놓고, 후에는 비디오도 억제한다.

부모님들에게 필요한 아이디어는 :

- 자녀들이 TV 대신 다른 할 일을 찾도록 도와준다.
- TV와 컴퓨터는 자녀의 방에 두지 말고 온가족이 쓰는 공간에 놓는다.
- 자녀들이 집에 오면 숙제를 먼저 끝낸 후 저녁식사때까지 밖에 나가서 놀게 한다.
- 자녀들과 함께 책읽는 시간을 정하여 온 가족이 독서를 즐긴다.

- 좋아하는 연속극이 나오는 시간에 같이 산책을 간다.
- 자녀들이 TV와 컴퓨터를 이용하는 시간을 정해서 꼭 지키도록 규제한다.

Poem in Your Pocket Day(April 28, 2006, 여러분의 포켓에 시를)

올해 4월 28일은 제 4회 “포켓에 시를 넣어가지고 다니는 날”로 지정이 되었다. 4월이 “전국 시의 달”이므로 이 달을 기념하기 위해 뉴욕시 교육부가 뉴욕시장실, 뉴욕시 문화부, 뉴욕시립 대학 그리고 뉴욕타임즈와 함께 이 날을 후원하게 된 것이다. 이 날 뉴욕 시민들은 포켓에 평소에 좋아하는 시를 넣어 가지고 다니며, 친구, 가족들과 함께 좋아하는 시를 서로 나누는 것이 장려되고 있다. 뉴욕시 5개 구 공립학교들에서는 이날을 기념하여 시인들의 시 낭송과 시짓기 워크숍 등을 계획하고 있다. 뉴욕타임즈에서는 4월 한달 동안 매주 한 번씩 엄선된 시들을 싣고 있다. (<http://www.nyc.gov/html/poem/html/about/home.html>)

School Library Media Day Open House/Media Fair(학교도서관 오픈 하우스)

학교가 속한 커뮤니티에 학교도서관의 각종 도서 미디어 프로그램들을 홍보하고 학생들에게 자신들이 그동안 익힌 미디어 기술과 경험들을 발표하고 나누기 위하여 학교도서관 오픈하우스를 실시한다.

- 학생들로 하여금 학부모, 교사들, 커뮤니티내 정부 관리들에게 초대장과 학교도서관의 이모저모를 소개하는 안내장을 학생들이 직접 제작하여 발송하고 방문자들에게 배부하도록 한다.
- 학교도서관에 시청각 코너, 디자인 코너, 신간서적 코너 등 여러 코너들을 마련하여 방문객들이 둘러보며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학생들이 안내를 맡도록 한다.
- 최근 실시된 학교도서관 행사들을 비디오나 파워포인트로 상영하며, 학생들의 독후감, 연구과제 발표 등도 게시해놓는다. 각 센터에서 진행된 학습의 장면들을 담은 스크랩 북을 전시한다.
- 그리고 한쪽에서는 도서관 전반에 대한 퀴즈문제들을 전시해 놓고 정답을 맞추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기도 한다.
- 학교도서관 이용을 홍보하는 책갈피 만들기 대회를 실시하여 상과 상장을 준다.
- 학생들로 하여금 진행과 안내를 맡게 한다.
- 방문자들을 위해 간단한 다과를 준비한다. (KSA)